

추경 10조+α ... 불평등 해소 협의기구 발족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수출입은행 1조 출자 합의 지역 밀착산업 적극 반영...누리과정·SOC는 배제

여야 3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된 공통의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10조원+α'의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SOC(사회간접자본)와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 편성에서 배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선, 여야 3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의제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3당이 각기 2명씩 추천한 인사들과 정부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협의기구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긍정적인 경쟁여건 마련, 사회적 격차해소 방안 등이 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은 내다봤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해법이 다를지라도 각 당 지도부가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나 접근성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지역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제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은 약 11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 기발행한 국제

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지출이 될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내외를 출자할 것"이라며 "3가지 항목에 6조 이상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한 4조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줄 것(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의주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해 위험업무의 재하도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김용태 "공수처 신설 시급"

전대 앞두고 광주 방문... "진경준 등 비리 수사 철저"



김용태 의원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처가 부동산 매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즉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경준 사태"가 점입가경이라며 "많은 국민은 진경준 검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정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특임검사가 며칠 만에 구속할 사안을 검찰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그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정총괄, 공직기강, 인사 등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인 중의 공인인데,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된 이상 이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정의 문제가 됐다"며 "만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자 국가문란 사태가 될 수 있음을 검찰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정운호 게이트'로 흥분 표 전 검사장이 구속되고 판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현직인 진 검사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 더 시간 끌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드 가고 평화 오라" 18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캠프캐를 앞에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관계자들과 신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軍 "美 광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 0.007% 검출"

우리 군이 처음으로 광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광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이 해외 사드 기지를 다른 나라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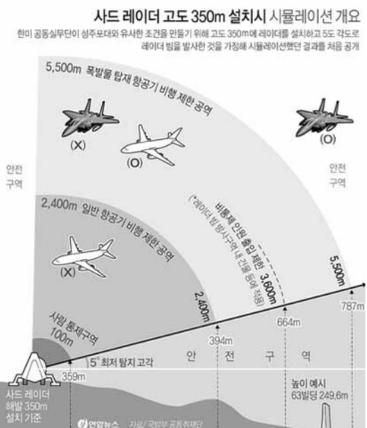
이날 우리군의 광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AN/TPY-2)에서 1.6km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성주포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레이더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하고, 최대치는 0.0007W/m²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m²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m²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계자는 "미국은 장방향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기지 설치 과정은) MDA(미사일방어국)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면서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고' 서청원 입 연다

전당대회 출마 가닥... '복당' 주호영 대표 출마 선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조만간 8·9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친박계로부터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서 의원은 2주일째 사실상 여의도에서 모습을 감춘 채 주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주말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 4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은 이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특임 장관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정보위원장, 공무원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비박계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하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고 최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복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대통령 귀국... '사드 해법' 내놓을까

조기 개각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4박5일의 몽골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반발을 최소화하고 중국 등 주변

국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국론 결집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처절한 처신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이 민심수습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조기 개각'을 단행할지 관심을 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